

고흥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첫 시행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최근 군청 팔영산홀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고흥군장애인복지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도전적 행동으로 기존 돌봄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지적·자폐성)장애인에게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응을 돕고 장애인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한다.

이날 학계, 민간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등 5명의 심사위원이 사업 운영의 적합성, 프로그램 구성의 충실성, 협력기관 확보의 다양성, 장애인 대상 복지사업 수행 실적 등 4개 분야 8개 항목을 심사했으며, 선정된 기관은 앞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등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조대정 부군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장애인 가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따뜻한 고흥군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7,049명의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일자리아업 참여 확대(200명, 전년 대비 35명 증원) ▲권리 중심 최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아업 추진(신규) ▲장애연금·장애수당 지원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등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립 지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종수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최근 군청 팔영산홀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고흥군장애인복지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흥군 제공

완도, 공감·소통 주간 운영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최근 ‘공감·소통 청렴 주간’을 운영했다. ‘공감·소통 청렴 주간’은 세대, 직렬 등 구분 없이 청렴에 대한 생각을 공유해 상호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반부패 시책 체감 등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는 전 공직자가 참여하는 청렴 실천 서약을 시작으로 군수와 함께 하는 청렴 즉문즉답, 부패 행위 모의 신고 훈련, 청렴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첫째 날에는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대내외적으로 완도군 공직자의 청렴 실천 의지를 표명하고자 군수, 부군수 등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청렴 실천 서약식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청년센터 ‘완생’에서 군수와 직원들 간에 청렴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고 조직문화 개선과 공정성, 소통이라는 주제로 2시간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군수는 업무 개선과 관련된 건의는 즉각 수용해 개선하기로 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문수 기자

해남군, 문화공방이 된 경로당 활기 넘쳐

해남군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문화공방 프로그램을 보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남군 경로당 문화공방사업은 어르신들의 여가 중심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는 경로당에서 다양한 생활용품이나 공예품 등을 만드는 ‘문화공방’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돼 올해는 관내 경로당 30개소에서 440여명의 어르신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수제비누나 천연화장품을 비롯해 한지공예, 자개공예, 양말목 공예, 나무 주방용품, LED 플라워 만들기 등 어르신들도 쉽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생활용품 등을 제작하는 내용이다.

프로그램은 3개월간 운영되며, 각 경로당으로 전문 강사가 파견돼 어르신들의 흥미와 수준에 맞춘 맞춤형 강좌를 진행한다.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여가시간을 유익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프로그램을 통해 완성된 작품은 지역 축제나 전시회를 통해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등 어르신들의 성취감을 높이고 있다. 군은 문화공방에서 제작한 작품들을 각종 지역 축제와 플라마켓 등에서 전시, 판매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경제활동에 까지 연계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김모(75세) 어르신은 “예전에는 경로당에서 주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는데, 이번에 도자기 공예 수업을 듣고 나니 새로운 세상을 만난 기분이다”며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자신감도 생기고, 서로 작품을 자랑하고 응원하면서 큰 기쁨을 느끼고 있다”며 공방 프로그램이 일상에 가져다 준 변화를 이야기했다.

/윤보현 기자

보성군장학재단 장학생 수기 공모전 개최

보성군은 10월 24일까지 (재)보성군장학재단(이사장 문찬오)이 개최하는 ‘제4회 장학생 수기 공모전’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보성군장학재단의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성장 이야기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장학재단과 함께한 여정을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모 자격은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재)보성군장학재단을 통해 장학생으로 선발돼 장학금을 지원 받은 적이 있는 자이다.

주제는 보성군장학재단과의 동행 ‘나의 꿈과 성장 스토리’이며, 장학금을 통해 이룬 꿈과 성장 과정을 중심으로 재단의 지원이 본인의 인생에 미친 영향 등을 담으면 된다.

우수 수기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수상 1명(상장 및 시상금 70만 원) △우수상 2명(상장 및 시상금 각 50만 원) △장려상 3명(상장 및 시상금 각 30만 원) △입상 30명(시상금 각 5만 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보성군장학재단(www.boseongsf.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재단 사무국(061-853-6948)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종수 기자

장흥군 여성단체협의회 저소득가정에 밀반찬 전달

장흥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기순)는 최근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정을 찾아 밀반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흥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은 정성을 담아 직접 만든 반찬을 조손가정 및 저소득 가정 44가구에 전달하며 지역사회 돌봄을 실천했다.

장흥군여성단체협의회는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지사(지사장 김재화) 군민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다문화가정 정착지원 환경개선 사업, 조손 및 위기가정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기순 회장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두연 기자

진도, 외국어 지원 무인민원발급기 도입

진도군이 전남 지자체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에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시행했다.

군에는 300명이 넘는 결혼이민자를 포함해 2,310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외국어 지원 서비스가 없어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진도군은 지역 내에 거주하

는 이민자 등의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2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 외국어 UI(User Interface(한글을 외국어로 변환)) 지원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발급기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한국어 외에 베트남어 등 4개 외국어를 지원하는 기능을 탑재해, 각종 지원사업

신청 시 서류 제출에 어려움을 겪던 이민자와 외국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민원봉사과장은 “다문화가정과 이민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평 기자

